

2019년 5월 3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국채금리 낙폭 축소하자 하락폭 감소 반도체 업종 강세 Vs. 의류업체, 신발업체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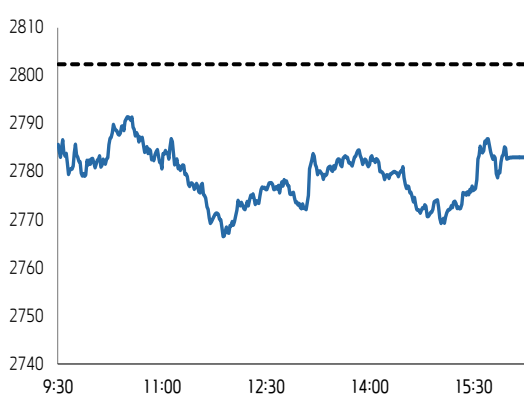
### 업종 변화 요인

미 증시는 10년물과 3개월 국채금리차가 5일 연속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매물 출회. 더불어 중국의 인민일보가 무역분쟁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도하는 등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부담. 그러나 오후 들어 국채금리가 낙폭을 축소하자 지수 또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음(다우 -0.87%, 나스닥 -0.79%, S&P500 -0.69%, 러셀 2000 -0.94%)

미 증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소매유통업체들의 부진. 장 초반부터 인텔(+1.51%), 자일링스(+1.92%) 등 반도체 종목은 상승. 미 증시가 경기 둔화 이슈 부각에 따른 매물 출회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음. 이는 화웨이 미국 지사의 최고 보안책임자인 앤디 퍼디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추정. 그는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주장. 앤디 퍼디는 과거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으로 화웨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되며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

이런 가운데 아베크롬비&피치(-26.47%)와 캐나다구스(-30.86%)가 30% 내외 급락. 두 종목 모두 동일점포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2분기 매출 전망 또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부담.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 결국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로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1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 데 이어 2분기도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한편, 투자은행들은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로 기업이익은 5~10%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3,25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하면 그 폭은 더욱 확대 될 것이라고 발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간 관세 발효가 확대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와 그에 따른 투자감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1.25	2,023.32	-1.25	홍콩恒生	-0.57	27,235.71	-0.57
KOSDAQ	-1.61	691.47	-1.61	영국	-1.15	7,185.30	-1.15
DOW	-0.87	25,126.41	-0.87	독일	-1.57	11,837.81	-1.57
NASDAQ	-0.79	7,547.31	-0.79	프랑스	-1.70	5,222.12	-1.70
S&P 500	-0.69	2,783.02	-0.69	스페인	-1.21	9,080.50	-1.21
상하이종합	+0.16	2,914.70	+0.16	그리스	-0.20	793.06	-0.20
일본	-1.21	21,003.37	-1.21	이탈리아	-1.29	19,999.94	-1.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업종 강세

인텔(+1.51%), 자일링스(+1.92%), 스카이웍(+0.78%), 퀴보(+2.22%), 마이크론(+1.06%) 등은 화웨이 미국 지사 최고 보안 책임자가 미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제약업종인 존슨앤존스(-4.19%)은 약품 과용과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락 했다. 그러나 관련 분쟁에서 합의를 했던 테바(+1.89%)는 전일 13% 넘게 급락 하기도 했으나 오늘은 반등에 성공 했다.

아베크롬비(-26.47%)와 캐나다 구스(-30.86%)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드런스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 했다. 디스 스포팅(-5.90%)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업종의 움직임 여파로 동반 하락 했다. 이 영향으로 갭(-2.53%), 노드스트롬(-1.70%), L브랜드(-7.06%) 등 의류 유통업체들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관련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 요인을 대 중국 관세라고 발표하자 나이키(-2.87%), 아마존(-0.94%), 코스트코(-2.28%) 등도 동반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52%	대형 가치주 ETF(IVE)	-0.53%
에너지섹터 ETF(OIH)	-0.15%	중형 가치주 ETF(IWS)	-0.68%
소매업체 ETF(XRT)	-2.24%	소형 가치주 ETF(IWN)	-0.61%
금융섹터 ETF(XLF)	-0.19%	대형 성장주 ETF(VUG)	-0.75%
기술섹터 ETF(XLK)	-0.59%	중형 성장주 ETF(IWP)	-0.7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2%	소형 성장주 ETF(IWO)	-1.18%
인터넷업체 ETF(FDN)	-1.23%	배당주 ETF(DVY)	-0.65%
리츠업체 ETF(XLRE)	-1.1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3%
주택건설업체 ETF(XHB)	-1.3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8%
바이오섹터 ETF(IBB)	-1.12%	미국 국채 ETF(IEF)	-0.04%
헬스케어 ETF(XLV)	-0.96%	하이일드 ETF(JNK)	-0.28%
곡물 ETF(DBA)	0.00%	물가연동채 ETF(TIP)	+0.18%
반도체 ETF(SMH)	+0.33%	Long/short ETF(BTAL)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4.45	-0.62%	-6.15%	-9.18%
소재	333.05	-0.06%	-2.65%	-7.44%
산업재	611.41	-0.45%	-3.72%	-7.08%
경기소비재	886.86	-0.88%	-3.43%	-6.86%
필수소비재	576.17	-0.71%	-2.40%	-2.94%
헬스케어	1,009.65	-0.95%	-1.97%	-2.29%
금융	439.07	-0.11%	-2.42%	-5.57%
IT	1,271.44	-0.60%	-3.14%	-7.98%
커뮤니케이션	160.85	-1.11%	-2.15%	-3.96%
유틸리티	293.05	-1.34%	-1.54%	-1.58%
부동산	221.91	-1.16%	-1.19%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저가 매수 기대 높아

MSCI 한국 지수 ETF는 0.97%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65%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2,715 계약)에 힘입어 1.05pt 상승한 262.15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2.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이 축소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S&P500의 12개월 Fwd PER이 5년 평균(16.5 배)를 하회한 15.8 배를 기록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KOSPI의 경우 12개월 Fwd PBR이 금융위기 당시(0.80 배)에 근접한 0.81 배를 기록하고 있어 저가 매수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미 증시가 여러 악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 요인은 '저가 매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반도체 업종은 화웨이가 미국의 보안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반등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으나, 관련 우려로 급락했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요인으로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저가 매수' 기대감이 높아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지수 개선

5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는 전월(3)보다 개선된 5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6)보다는 부진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2→0), 수주잔량(-12→-4), 출하지수(-2→2) 등은 개선되었으나, 고용지수(18→17) 등은 부진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채금리 장중 낙폭 축소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그러나 여전히 OPEC 과 러시아가 감산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낙폭은 제한되었다. 여기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UAE 를 방문하는 등 이란과의 지정학적 분쟁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낙폭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여파로 여타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와 EU 간 재정적자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부각되며 달러화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6 월 5 일 보고서 제출을 위해 EU 가 이탈리아에게 공공부채 감축 노력 불충분 관련 해명을 이틀안에 보내라는 서한을 보낸 점이 유로화 약세 요인 이었다. 파운드화는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이어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10 년물이 한 때 2.21%를 하회하며 연준의 기준금리인 2.25~2.50%의 하단을 하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3 배)를 하회한 2.30 배를 기록하고, 간접 입찰도 12 개월 평균(61.6%)를 하회한 58.2%를 기록하는 등 국채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가격이 하락 했으며 반대로 국채금리는 낙폭을 축소했다. 특히 5 년물의 경우는 국채입찰 영향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금은 경기 둔화 우려 및 이탈리아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3%, 철근도 0.16%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8.81	-0.56	-6.84	Dollar Index	98.157	+0.21	+0.12
브렌트유	69.45	-0.94	-2.17	EUR/USD	1.1132	-0.25	-0.16
금	1,286.30	+0.30	+0.59	USD/JPY	109.63	+0.23	-0.66
은	14.411	+0.64	+0.01	GBP/USD	1.2629	-0.19	-0.28
알루미늄	1,795.00	-0.66	-0.06	USD/CHF	1.0081	+0.04	-0.16
전기동	5,883.00	-1.29	-1.88	AUD/USD	0.6918	-0.09	+0.52
아연	2,541.00	-0.82	-1.40	USD/CAD	1.3516	+0.16	+0.60
옥수수	418.75	-0.36	+6.21	USD/BRL	3.9725	-1.32	-1.66
밀	490.50	-2.82	+2.45	USD/CNH	6.9326	+0.16	-0.02
대두	872.00	+1.87	+6.08	USD/KRW	1193.90	+0.68	+0.09
커피	99.50	+3.59	+7.10	USD/KRW NDF 1M	1192.65	+0.42	+0.26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261	-0.53	-12.15	스페인	0.730	-5.40	-13.60
한국	1.735	-5.20	-9.00	포르투갈	0.846	-7.00	-17.70
일본	-0.090	-1.80	-3.40	그리스	3.120	-4.80	-27.90
독일	-0.179	-1.80	-9.30	이탈리아	2.639	-4.20	+0.80